

## WCRC 총회 청년 메시지

### 서문

이번 총회의 빠른 진행 속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업무와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과도하게 남성적인 태도가 과시되고 있습니다. 개회식에서 초안 작성 위원회는 잠도 자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기록하고 논의의 자리에서 우리의 뜻을 분별하는 이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잘 알고, 우리와 함께하며, 휴식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총회 참석자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들려고 여기 온건 아니지 않나요?

청년 코커스를 통해 연대와 우정을 쌓기 시작했지만 고작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위해 앞서 싸워주신 청년 선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개혁교회 커뮤니티가 청년 교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고 총회에 전달할 사항들을 정리한 성명을 충분히 작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의 형식, 즉 워크숍과 병행하여 코커스 그룹이 모이는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참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우리만 마치 일괄적으로 주일학교로 보내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WCRC가 앞으로 청년과 여성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요청합니다. 또한 원주민, 장애인, LGBTQIA를 위한 코커스 그룹이 전혀 없다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와 함께 교제하고 연대 구축을 위한 코커스 그룹이 필요합니다.

### 벌써 지쳐서는 안 될 우리지만, 이미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 성명이 이전 세대 청년들의 성명과 상당히 다릅니다. 이전 총회에서 청년들이 보였던 분노와 열정, 심지어 희망마저도 우리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향한 연민과 정의에 대한 피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회가 왜 젊은이들의 분노를 기대하는지 여쭙보고 싶다.

### 우리가 언제 이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라.  
너희 아들딸들이 예언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저희는 항상 너무 바쁩니다. 때로는 바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는 우리를 공동체에서, 지역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에서 떨어져 놓았습니다. 우리는 고립되고 서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자본주의는 우리를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가장 많이 성공하고, 가장 많은 돈을 벌고, 가장 많은 친구와 명성을 갖길 위해 노력합니다. SNS가 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요'와 관심을 위해 콘텐츠를 포스팅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마케팅이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희석됩니다. 탐욕과 이기심이 가득한 오늘날, 단순함과 개인 이익이 청년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가 제자 양성을 위해 이러한 SNS 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AI는 우리가 일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과 동의합니다. 그러나 AI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AI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든, 매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AI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씨름하며 함께 일할 때, 비로소 거룩하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자에서 실시간으로 자행되는 학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의 재앙적 영향—가뭄, 땅의 소멸, 홍수—우익 포퓰리즘의 부상과 이민자·난민에 대한 증오를 목격하며 우리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정말 분노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총회에서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총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하고, 생계를 위해 돈을 벌어야 하며, 교육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왜 어떻게 분노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치열한 일상생활의 부담으로 짓눌려 있습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압박감, 이 고독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항의해도 정부는 우리에게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외롭게 서 있는 가운데, 분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억압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이며, 정의와 사회적 포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그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대합니다: 악자와 함께 서고,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 우리의 증언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이 곳에서 서로와 교제하며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울고 있지 않나요? 우리 중 대부분은 한 번도 모국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 우리 모두 눈물 흘리고 있지 않을까요? 왜 울부짖지 않는 걸까요? 왜 함께 애도하지 않는 걸까요?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서로에게 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있나요? 우리는 이 총회가 계속해서 신자유주의적, 식민주의적 사업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이를 반대합니다. 이것이 세계 커뮤니티인가, 아니면 단순한 세계 회의인가?

우리의 연민 피로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개혁 신앙의 교제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절차를 잘 따르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모든 회원 교회가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향후 총회에서 더 높은 참석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토록 많은 고통을 경험하기에는 아직 너무 쉽습니다.**

WCRC의 젊은 세대로서, 우리는 정신 건강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세대를 초월한 교회 전체가 이 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지도자들이 모든 연령층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잘 경청하며, 함께 회복과 치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사랑과 돌봄, 회복의 메시지며,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돌보는 일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은혜로 수용하는 교회, 고난을 홀로 감당하지 않게 하는 교회, 정신 건강이 인간 존재의 일부로 이해되는 교회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이제는 그 고통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과연 살아가

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하나님과 함께 웃고 싶습니다—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웃어야 합니다.

*찢을 때가 있고 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우리는 아파합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정의는 물처럼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할 수 없습니다. 서로를 끊임없이 이용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인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여주십시오, 이 혼란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서로 안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주시옵소서.

## 제안

- 총회는 교단 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A. 다음 총회 전에 최소 한 번의 독립적인 청년 모임 개최.

B.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청년 교제 기회 확대

2. WCRC는 번아웃,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지향되지 않도록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예배 생활 속에서 묵상과 휴식, 안식의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 및 회원 교회 내에서도 동일한 방향을 추진합니다.

## 붙임:

소외된 자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날 어디에 계실까?

구치소

배를 타고 피난 중

혼잡한 숙소

난민 캠프

가자에서 연 날리기

노숙인 보호시설

숨어있는 분들과 함께

S\_Youth\_Korean

내가 있는 곳과 없는 곳

**예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자본주의

두려움

무관심

가부장제

동성애 혐오

인종 차별

장애 차별

전쟁

세계적 경제적 불공정

핵무기

**오늘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 것 같나요?**

공동체

숲

도서관

학교

무상의료 시설

가정집

LGTBQ+ 커뮤니티

케일리(Ceilidh)에서 춤추기

내가 안전함을 느끼는 곳

**예수님께서 다시 자유롭게 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공동체

S\_Youth\_Korean

친절

창의성

연대

조직력

하나님에 대한 신뢰

존재와 증언

선택의 특권